

전자칠판 1인자, AI 날개 달고 글로벌 장악 시동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아하정보통신 구기도 대표

“아하’가 만든 전자칠판을 지구촌 모든 강의실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LCD 전자칠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탑재된 전자칠판으로 글로벌 교육기자재 시장을 다시 한번 호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아하정보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상 공간에서 잠재적인 확진자를 사전에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 출입자 얼굴 인식과 발열체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패스’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 김포 양촌에 있는 아하정보통신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누구나 눈에 익은 ‘처음처럼’이라는 글씨가 확 들어온다. 얼핏봐도 소주 브랜드의 ‘처음처럼’과 같은 글씨체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가 맞다. 우리 회사 사훈이 ‘처음처럼’이다.”

글을 보면서 잠깐 생각에 잠긴 기자에게 구기도 대표가 웃으면서 설명했다. 무슨 연유로 사훈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 답을 찾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하정보통신은 구대표가 95년 당시 창업한 회사다. 63년생인 구대표가 서른 두살때였다.

“유치원에 CCTV를 달아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다. 장사가 잘 됐다. 마진도 제법 많아 돈도 벌었다. 그러다가 한 대기업으로부터

시가 37억원 어치의 CCTV를 20억원도 안되게 싸게 사들여 사업을 더 확장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돈을 주고 가져온 CCTV를 다음날 싹 도둑맞았다. 도둑은 찾지도 못했다.”

서른 초반에 겁없이 시작해 돈을 좀 벌어들였는데 갑작스럽게 불운이 찾아온 것이다.

“돈이 없어 카드깡까지 해야 했다. 신용은 다 망가졌다. 2002년까지 빚을 다 갚고, 신용이 회복돼야 그나마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참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때 (실패없이) 흥했더라면 내가 버릇없는 사람이 됐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처럼’을 사훈으로 정했다. 초심을 절대 잃지 말자고...”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 소위 땅파고 다리밖에 놓을 줄 몰랐던 구대표는 마음을 다시 잡고 일어섰다. 때는 2007년이었다. 그러면서 정한 사업아이템은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이었다.

구 대표는 “화이트보드 일색이던 교실의 칠판을 LCD 전자칠판으로 바꿔 놓기 시작한 곳이 바로 우리 회사다. 국내에선 현재 11년째 시장 1위를 지키고 있고, 전 세계 63개국에서 ‘아하 전자칠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2억원의 매출을 거둔 아하정보통신의 국내 전자칠판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으로 39.5%였다. 그렇다고 단순한 전자칠판이 아니다. 크기는 55인치부터 98인치로 대형에 FHD와 UHD 해상도를 지원해 일반 TV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전자기 유도방식의 터치센서는 세계에서 3번째이자 국내에선 아하정보통신이 처음으로 개발, 적용했다. 아하정보통신이 축적해 온 기술력은 본사 한쪽에 마련해 놓은 ‘특허 복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본사 쇼룸에 있는 다양한 대형 전자칠판에 손이나 터치펜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회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전자칠판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선생님들은 만능이 아니다. 갑자기 학생에게 모르는 질문을 받았다면 AI 기능을 탑재한 전자칠판이 그 답을 찾아 학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자칠판의 모습이다.”

최근 들어 병원이나 은행 창구 등에서 고객들이 사인을 하는 스마트보드 역시 대부분 ‘아하(AHA)’의 제품이다.

이런 가운데 아하정보통신은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다. 얼굴 인식·발열체크 출입통제 시스템인 ‘스마트 패스’를 통해서다.

구 대표는 “대부분의 건물 입구에 설치돼 있는 열감지카메라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열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해당 측정치를 보면 사람의 온도가 31~32도로 나올 정도로 엉망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패스’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0.5초 만에 얼굴을 99%까지 정확하게 판독하는 동시에 체온 측정도 정확하다”고 자부했다.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아하정보통신은 세계 1위의 얼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센스타임의 센서와 독일 하이만의 적외선 온도측정 센서를 스마트 패스에 각각 적용했다. 물론 완제품

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다.

스마트 패스는 시장에 나온 지 채 두 달이 안됐지만 벌써부터 입소문과 마스크 등을 타고 장점이 알려지면서 버스, 지하철, 관공서 등으로 주문 물량이 몰려들고 있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금은 스마트 패스 매출이 전자칠판 등 기존 사업을 크게 뛰어 넘을 정도로 호자 상품이 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예기치 못하게 기회를 잡고 있는 아하정보통신과 구 대표. 어떤 기업을 만들어가고 싶느냐는 말에 그는 대뜸 “기업하면서 지탄받고 싶지 않다. 욕 먹으면서 사업할 생각 없다. 교육을 변화시키는 장비 사업을 계속해 왔던 것도 그때문이다. 회사는 국가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 구성원은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잘 먹고 살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며 웃었다.

/김포(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고대 신화가 내다본 미래 과학

지구 위를 걸어 다닌 최초의 로봇은 탈로스라는 이름의 청동 거인이었다. 그리스 신화 속 발명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탈로스는 자신에게 프로그래밍된 ‘영토 방어’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가 가진 단 하나의 두려움은 자신이 죽거나 소멸해 임무를 마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거대한 로봇을 혼자 쓰러뜨린 마녀 메데이아는 탈로스의 ‘욕망’ 즉, 알고리즘의 맹점을 파고든 사상 최초의 해커다. 메데이아는 탈로스의 곁으로 가서 이렇게 속삭였다. “네가 불멸하는 존재가 된다면 이 영토를 지키는 너의 목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의외의 제안에 흔들린 탈로스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메데이아의 전략은 적중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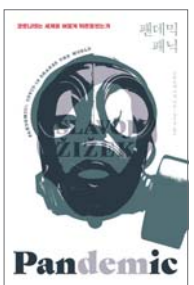


신과 로봇
에이드리엔 메이어 지음/안인희 옮김/울문문화사

탈로스는 그녀의 말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책은 탈로스 신화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딜레마를 발견한다. 저자는 고대 신화가 미리 내다본 미래 과학의 빛과 그림자를 들춰낸다. 현실이 된 신화 속 과학. 452쪽. 2만원. /김현정 기자 hjk1@

팬데믹 패닉



코로나19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어느 나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자랑하던 나라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저자는 감염병 창궐은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와 자연에 저지른 만행이 자기 파괴의 현실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이러스가 아닌 사회 시스템임을 일깨운다. 200쪽. 1만5000원. 슬라보예 지젝 지음/강우성 옮김/북하우스

시몬스, ‘시몬스 맨션 광주하남로점’ 오픈

“혼수·이사 용품 쇼핑 한 번에”

시몬스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시몬스 맨션 광주하남로점’을 새로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시몬스 맨션’은 시몬스 침대 본사가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진열 제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100% 지원하는 형태의 대리점이다. 대리점주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매장 운영과 제품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몬스 침대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몬스 맨션 광주하남로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문화생활 중심지인 광주 북구 중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인제 각종 편의생활 시설이 활성화된 동림동에 자리 잡았다. 주거 선호 지역에 위치한 만큼, 인근 백화점과 대형 마트와 함께 상권을 이뤘다. 혼수나 이사를 앞둔 가족 단위 고객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남대로에 위치해 광산구 첨단동, 서구의 동천동, 광천동 등 인근 지역 고객까지 확보할 전망이다.

시몬스 맨션 광주하남로점은 1층과



시몬스 맨션 광주하남로점 내부 전경.

2층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됐으며, 여유로운 공간에서 혼수 침대 대명사로 알려진 시몬스 침대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제품과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퍼니처 및 베딩 등의 아이템을 선보인다. 1층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라지 킹(LK), 킹 오브 킹(KK)의 대형 사이즈 매트리스 위주로 진열됐으며, 2층은 수퍼싱글(S)부터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을 비치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시몬스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1870개 한정수량으로 제작된 ‘뷰티레스트 1870’ 매트리스와 150주년 기념 프레임 ‘1870 클래식 에디션’ 및 ‘1870 레트로 에디션’도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한샘 ‘동행세일’ 동참 가구 최대 50% 할인

한샘은 오는 7월12일까지 펼쳐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전국 한샘디자인파크, 한샘인테리어 등에서 가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샘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취지에 공감하고 가구 한정수량 특가 세일 등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매트리스와 침대를 함께 구매하면 침대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 제품은 ▲유로501▲유로502▲유로50▲유로504▲유로604 5종이다.

베스트 소파 3종도 싸게 판다. ‘유로 601 키안티’ 소파는 최대 50만원, ‘바흐 702’ 소파와 ‘바흐 703’ 소파는 각각 최대 30만원, 60만원 싸게 살 수 있다.

‘유로 601 뉴트럴’ 식탁은 한정수량 500개를 대상으로 최대 27만원 할인한다. 프리미엄 가죽 침대 ‘바흐 801’은 킹(K)사이즈 기준 35개 한정수량으로 최대 70만원을 낮췄다. 7월 첫째 주부터는 소파, 식탁 등을 대상으로 한정수량 할인 행사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한편 한샘은 지난 2월 총 5억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전국 매장에서 정기적으로 매장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